

어은리 주민들의 출입구에 대한 인식*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의 사례-

이관희

대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Residents' Recognition of House Entrance at Eoeun Village - The Case of Eoeun-Ri, Yungcheon City -

Lee, Kwan-Hee

Faculty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Taegu

ABSTRACT

This research is related to house entrance recognition of residents, who have long kept the entrance without a closing door in Eoeun village, Geumho, Keongbook.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nterpret the recognition of a house entrance in Eoeun village with the theories of cultural ecology.

Final results suggest the belief for all the inhabitant's welfare through anthropological adaptation to habitat. The fish in the Geumho River had sought the shelter from the heavy rain in summer. The Eoeun forest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provided good shelter for the fish.

The Eoeun residents thought that the safe shelter for the river fish is also semantic for the people. They believed that if the fish could not find shelter, i.e., the Eoeun forest and left, the village could be not safe for their life.

Therefore, even the entrance of house should be structurely opened for the fish shelter in a symbolic sense. The entrance without a closing door has implied that their life should depend upon their natural environments because they have believed that till now there have been no considerable accidents in the village.

Key Words : Entrance, Recognition, Village Landscape, Countryside Planning, Forest

*: 이 논문은 2000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한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출입구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이라고 설명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단순하게 보면, 사람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드나들고 필요한 물자를 이동하는 통로이지만 의사(意思)가 소통되도록 하는 연결점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세상과 다른 세상사이를 구별짓는 경계로도 활용되기도 하며 추상적으로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통로로도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입문은 피해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Cooper, 1987: 72-73).

그러나 한국의 살림집의 출입구를 보면, 솥을대문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상류층의 출입문으로서 목재로 짠 문짝을 달아 만든 문(門)이고 제주도 성읍 마을의 살림집은 출입구에 나무로 가로질러 꽂은 문(門)으로 기로 지른 나무의 솥자는 방문자에게 주인의 의사를 표시한다. 출입구는 단순한 공간을 통제하거나 연결하는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출입문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자를 고려한 출입문의 기능성을 중시한 연구(이승용, 1999)나 환경공학적 관점에서 출입문의 소음차단에 관한 연구(이용일, 1982) 등이 있다. 또한 시지각적 입장에서 이미지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최기철, 1994), 디자인 의도를 알아내는 연구(금상수, 1988), 아파트 단지의 출입공간의 특성(전은배, 2000),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출입구의 연구(강건희, 1995) 등이 있다. 주로 기능적이거나 심미적(審美的)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마을의 출입구는 있으나 출입문이 없는 경북 김호읍 어은리(魚隱里)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이면(裏面)에 잠재(潛在)해 있는 의미를 문화 생태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어은리(魚隱里) 마을의 살림집들은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면 “도둑 맞는다.” 혹은 “손해 본다.” 는 이야기가 있어 지금도 출입문을 달지 않고 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런 현상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

며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게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좀더 이해하고 전통(傳統)마을의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어은리(魚隱里) 주민들 모두가 이러한 출입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서 최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편일 것으로 본다는 가설을 가지고 출발한다. 따라서 이 마을의 주민들이 출입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의미를 추적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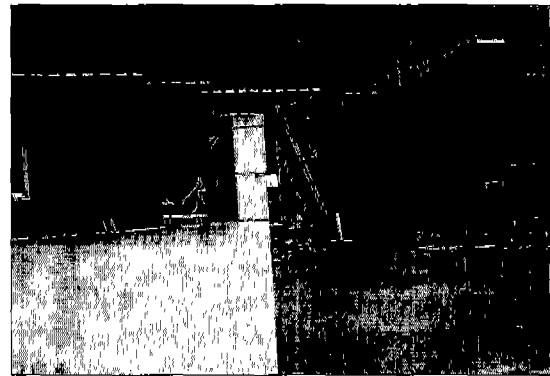


그림 1. 출입문 없는 출입구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중요한 내용은 마을, 마을주민과 출입구의 관계를 밝혀내는 일이고 그런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은리(魚隱里) 주민들이 독특한 출입문을 지켜온 문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바탕으로서 마을의 환경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문화인류학(文化人類學)의 한 분야인 문화생태학적(文化生態學的) 이론에 근거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주민 모두가 연구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로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 해야 하지만 어은리(魚隱里) 마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살면서 이 마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서씨(61세)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어진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성 때문이기도 하다(한경우와

김성례 역, 1996: 78-89).

이러한 인터뷰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동안 살아온 서씨 문중(門衆)에서 현재 노인회장(老人會長)으로 있는 서씨(82세)와 현재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있는 마을 이장(里長)인 서씨(46세) 과 평범한 노인인 이씨(80세)를 보완적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구조화된 형식을 피하고 비구조화(非構造化)된 형식을 택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약 1년 간이고 연구대상지역은 마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II. 어은리의 개요

영천시 금호읍(琴湖邑)은 200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5776세대가 있으며 인구는 15,213명이고 2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은리(魚隱里)는 이중의 하나로 83세대 249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41세대가 살고 있는데 나머지 42세대는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인접한 동네에 살고 있다.

어은리(魚隱里)는 일제시대에 청동기 유물이 출토된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유물이 출토된 곳이 어은동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정확한 장소는 아직 알 수 없다(영천향토사연구회, 2000)고 한다.

이 마을은 처음에 고성 이씨(李氏)가 들어와 살았으나 지금은 1집만이 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현재 달성 서씨(徐氏)가 이 마을에 들어와 생활한지 14세대가 지났으며 지금은 서씨(徐氏) 성(性)외에도 여러 성씨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과거에는 주로 논 농사를 지었으나 40년 전부터 사과농사를 지어오다 근래에 들어와 포도와 복숭아 농사를 주로 짓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경작지는 대부분 숲을 지나 금호강(琴湖江) 건너편에 있다.

마을입구의 숲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숲이 이 마을과 인접해 있는 냉천리 마을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그림 2 참조). 약 40여 년 전 금호강의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는 금호강(琴湖江)에 바로 연결되는 냇물이 숲과 함께 연결 되어 있었다. 지금은 제방의 축조로 인하여 마을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천이 있을 뿐이다. 이 숲을 지나서 좌측으로 보이는 곳에 이 마을에 유일하게 출입구의 출입문을 단 건물이 하나있다. 이것은 거연정(居然亭)이라 부르는 정자(亭子)로써 조선시대(朝鮮時代) 고종(高宗)때 참봉(參奉)의 벼슬을 지내고 당시의 세인(世人)들의 추종을 받았던 조병문(曹秉文)의 덕(德)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손(後孫)들이 지은 것이다(영천향토사연구회, 2000: 116-117). 이 숲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동서남쪽은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북서쪽만이 열려있는 위요(圍繞)된 공간 속에 마을의 가옥들이 등고선을 따라 좌우로 길게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어은숲

III. 결과 및 고찰

이 마을의 주민들은 출입문을 달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도 불편하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어은리(魚隱里)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문을 달면, 해롭다, 좋지 않다, 손해를 본다.” 는 말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 연구를 위해서 선정한 정보제공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서씨; 61세, 82세), 이러한 대답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물고기가 숨는 곳”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과 이면(裏面)에 잠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옥의 출입문

이 마을에 있는 가옥은 모두 출입구는 있으나 출입문을 달지 않고 있다. 마을이 들어설 때부터 출입문을 달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살아온 것인지 처음에는 일반적인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입문을 달았으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마을에 발생하여 출입문을 제거한 후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출입문을 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믿음과 모든 가옥이 예외 없이 출입문을 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마을에 이렇다할 범죄가 없다고 한다(서씨: 82세, 61세, 46세, 이씨: 80세). 가옥의 출입구는 마을의 출입구 방향인 북서(NW)쪽이 아니라 73%가 북동(NE)에서 남(S)향으로 나 있다(그림 3 참조). 이것은 마을의 공간구조가 남동으로 뻗어 있는 영향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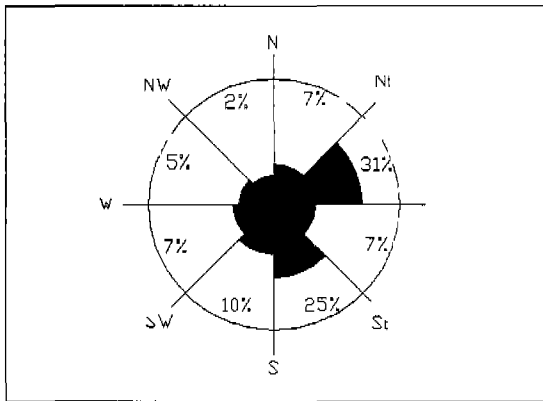


그림 3. 출입구의 방위각

2. 출입구와 어은

이 마을의 이름인 어은(魚隱)이란 이름은 앞에 있는 조그만 냇물에 고기가 잘 번식하여 붙여진 이름(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4) 이라고도 하고 고기가 많이 숨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금호강(琴湖江)과 아주 가까이에 인접하고 있어 고기들이 숨거나 많다는 뜻의 어은(魚隱)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어은(魚隱)이란 이면(裏面)에는 두 서씨(61세, 82세)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에 있는 가옥의 출입문(出

入門)에 문짝을 달게되면 손해나 어려움이 그 집에 처한다.” 는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 마을의 이름인 어은(魚隱)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을에 사는 주민이 고기가 살기 위해 숨을 수 있도록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지 않고 언제나 개방된 상태가 되면 그 집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믿는 반면에 출입문을 달아 통계하면, 고기들이 숨을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게되면 좋지 않은 일이 그 집에 생긴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다. 동네로 찾아든 고기들이 숨을 수 있도록 출입문을 달지 않아 개방하면 언제든지 고기가 들어와 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출입문 없는 가옥과 어은(魚隱)이란 이름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은(魚隱)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불리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 400-500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추정되고 그때부터 어은(魚隱)이란 마을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마을의 숲도 어은(魚隱)숲이라 부르고 있다. 어은숲은 이 마을의 입구에 있으며 사실상 마을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숲이나 가옥의 출입구는 금호강이 흐르는 쪽으로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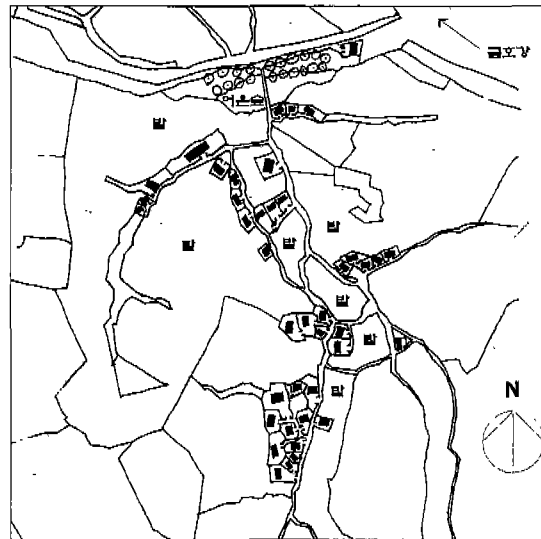


그림 4. 마을의 배치와 가옥의 출입구

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그림 4 참조), 이것은 마을공간에 대해서 갖는 환경론적 인식의 특징일 것이다.

3. 숲과 출입문

이 마을은 금호강(琴湖江)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흐르다 북서쪽으로 감돌아 흐르는 위치에 인접하여 있다. 마을의 초입부(初入部)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숲이 있으며 이 숲은 마을의 북서쪽에 있고 고목이 된 떡버들 나무로 이루어졌으며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다. 자세히 관찰하면 2줄로 심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봄에 마을 주민들이 기존의 수목이 노목(老木)이 되어 머지않아 고사(枯死) 하게될 것을 대비(對備)하여 20여 그루의 작은 떡버들 나무를 보식(補植)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는 17그루만 살아 있다. 주민들은 이 숲을 매우 신성(神聖)한 곳으로 믿고 있으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마을의 가옥(家屋)이 숲을 시각적으로 가리는 것도 꺼려했다고 한다(서씨, 61세).

이 숲을 통과하면 마을이 보이고 마을은 등고선을 따라 길게 형성된 공간 속에 들어서 있고 마을은 숲이 있는 북서쪽으로 열려 있고 다른 방향은 닫혀 있어 숲이 어은리에 인접한 냉천리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요 한편으로는 연결선이다. 따라서 이 숲은 마을주민들의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 숲은 실질적 물고기의 피난처(避難處)며 안전지대로 들어선 출입구로서 중요했으며 또한 마을주민들의 유일한 외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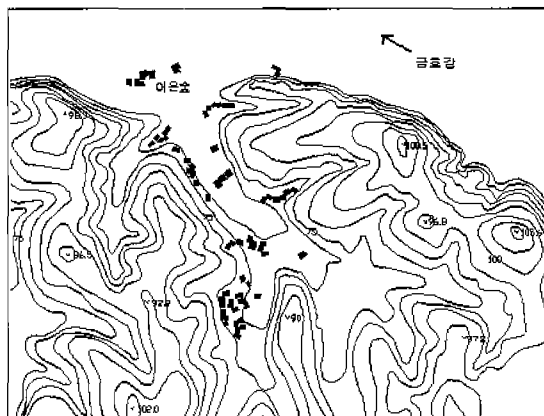


그림 5. 마을의 공간구조

연결되는 통로이다. 또한 서씨(82세)와 이씨(80세)에 의하면, 쇠로 만든 물건을 두드리거나 칠 경우 숲으로 찾아든 물고기가 놀라서 달아나기 때문에 쇠를 치거나 두드린 사람은 해를 입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마을에서 굿을 하거나 농악(農樂)도 하지 못하게 했으나 농악은 몇 년 전부터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고려(考慮)해볼 때에 이 숲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가옥의 출입구에 출입문이 없는 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마을에 바로 인접하여 금호강(琴湖江)이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마을의 공간도 비슷하게 북북 서쪽으로 열려 있고 다른 방향은 모두 닫힌 공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금호강(琴湖江)으로 부터 숨어드는 물고기들의 은신처를 막지 않으려는 가옥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지 않는 구조는 현상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출입구의 의미

이 마을에서 출입구의 의미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눈에 드러나는 중요한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마을의 출입구와 가옥의 출입구가 모두 물고기를 중요하게 부각(浮刻)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서씨(46세)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 여름에 작은 물이 넘으면, 고기를 잡았다.” 한다. 금호강에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여름철 홍수(洪水)가 나면 물고기가 이곳으로 숨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 강에 사는 물고기에게 여기가 안전지대의 입구가 된다는 뜻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화(劇化)시킨 것으로 물고기가 숨도록 가옥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지 않으며 심지어는 마을에서 고기가 놀라서 달아날 까봐 쇠소리를 내는 것도 꺼려했다는 말을 이해 할 수 있다.

둘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裏面的) 관점으로 보면 홍수(洪水)로 물고기가 위급할 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세파(世波)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에 좋은 곳(마을)을 보존해가려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서씨(61세)의 말을 들어 보면, “영천지역에서는 남어북매(南魚北梅)”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영천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마

울이름에 어(魚) 자(字)가 들어가는 마을과 북쪽으로는 마을이름에 매(梅) 자(字)가 들어가는 마을은 어려운 시기에 피난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어은리는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지낼 수 장소(場所)가 톨립없다고 믿고 있다.

이 숲은 주민들에게 오래 전부터 여가공간(餘暇空間)을 제공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입구로서 더 나아가 금호강의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마을을 수마(水磨)로부터 상당히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고기라는 매개체(媒介體)를 통해서 숲과 관련하여 가옥의 출입구는 구조적으로 출입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그림 6 참조). 이러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을의 숲과 가옥의 출입구를 마을사람들이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으로 매우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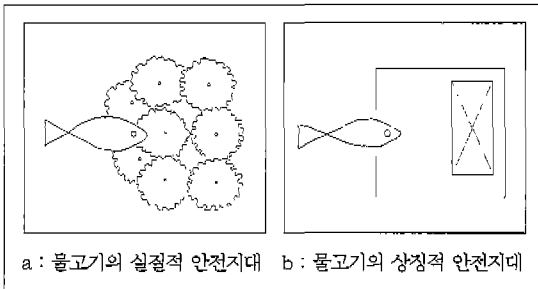


그림 6. 주민들의 인식구조

IV. 결론

이 연구는 어은리(魚隱里) 주민들이 가옥의 출입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에 관한 것으로 문화생태학적(文化生態學的) 접근을 통해서 볼 때,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입구만 있는 구조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유지(維持)해 나가는 한 방편으로서 나름대로의 경험론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어은리 마을의 가옥에 출입문이 없는 출입구를 오래도록 예외 없이 지금까지

선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이 마을이 바로 금호강(琴湖江)에 바로 인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여름철 홍수 때에 물고기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이며 동시에 마을 주민들도 세상이 어려울 때 물고기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은거(隱居)하고 평상시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믿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江)에 인접한 이 장소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도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터로써의 환경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마을이다.

살아있는 마을의 전통이 되기 위해서 마을의 환경을 다루는 계획이나 설계는 전통의 집착(執着)이 아니라 전통의 의미와 전통의 생성과정을 모색(摸索)하여 발전시켜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보면, 앞으로 지속적(持續的)인 연구와 폭 넓은 전통마을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삶을 영속(永續)해온 주민들의 환경관(環境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강진희(1995) 박물관 건축에서의 출입구 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75.
2. 경상북도 교육위원회(1984)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3. 금상수(1988) 한국전통주택의 출입구 디자인 의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4. 영천향토사연구회(2000) 골별 6집 대구: 도서출판 맑음.
5. 이승용(1999) 지체장애자를 위한 출입문 디자인에 관한 연구-휠체어 사용자들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대학원.
6. 이용일(1982) 출입문의 차음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7. 전은배(2000) 도시 아파트단지 출입구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8. 최기철(1994) 문의 이미지표현에 관한 조형연구-한국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9. 한경구와 김성례 역(1996) 문화인류학 현지조사방법론. Crane, Julia G. and Angrosino, Michael V. Field Projects in Anthropology: Handbook a Student. 서울: 일조각.
10. Cooper, J. C.(1987)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원고접수: 2001년 6월 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8월 3일

3인 익명 심사필